

2015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2015년 1/4분기 부가 조사 : 청년 실업에 대한 인식	19
IV.	요약 및 시사점	21
	부록 : 2015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3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i.re.kr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1월 들어 다시 하락세

서울의 산업생산은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2014년 12월 8.0%를 정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5년 1월 들어 소비재 생산이 급감하여 -2.6% 증감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2014년 8월 9.8%의 정점 이후 백화점 판매의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여 최근 3개월 평균 성장이 3.1% 감소하였다.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4년 11월 0.8%로 1%대에 가깝게 증가하였으나, 1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2% 소폭 상승한 5,118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하반기 공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전년 동월 대비 1.7%대까지 성장하였으나,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부진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5년 1/4분기에 전(前) 분기 대비 1.9p 하락한 90.6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이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상승한 81.0을 기록하였으나, 지수 값이 여전히 80대 초반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5를 기록하였고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에서 '교육비'는 122.1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심리 개선은 미미하지만 새 학기 준비 등이 가계 부담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2.9p 상승한 130.9로 2008년 조사 이래 최저점(128.0) 이후 상승세로 소폭 반등하였다. 따라서 향후 체감물가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2p 감소한 73.1로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 인식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내수 회복과 미래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 성장력 강화

서울의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소득 향상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근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충분한 교육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게임·영화 등 성장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클러스터 및 도심형 산업 등 특화산업의 활성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력을 공고화해야 한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가 주춤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1월 들어 다시 하락세

- 자본재 중심의 생산 증가로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평균 1.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 소비재 중심의 급격한 감소세
-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2014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14년 말 「산업생산지수」는 2014년 12월 8.0%를 정점으로 플러스 성장
- 이후 1개월 만에 소비재 생산이 급격히 하락하여 「산업생산지수」는 2015년 1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
- 부문별로 자본재와 중간재, 소비재 생산은 2015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6%, 9.2%, -7.4%가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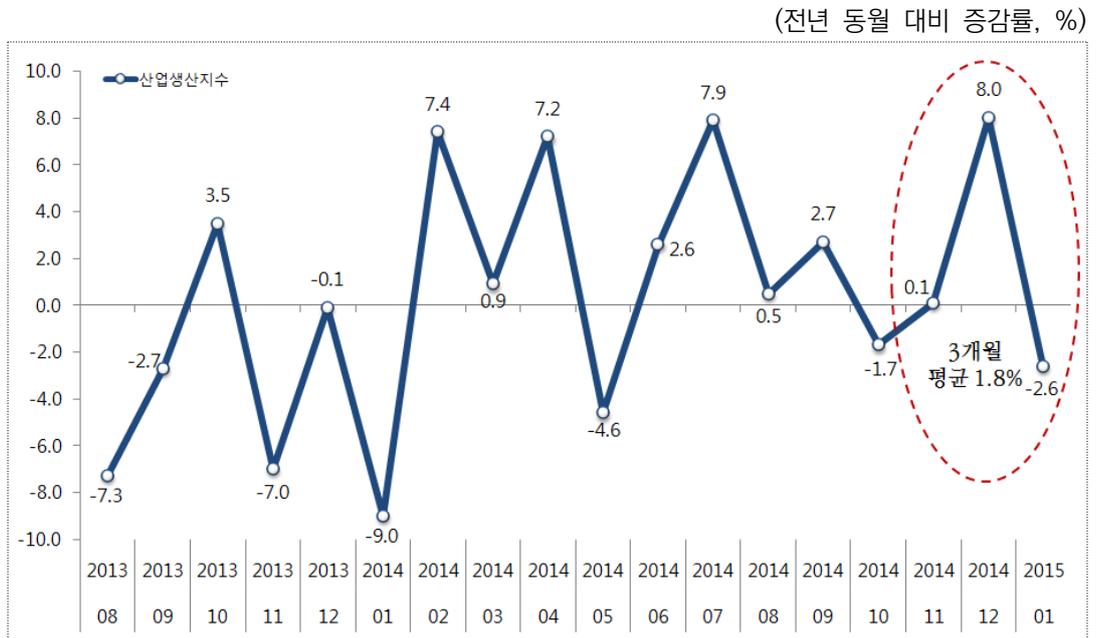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자료 : 통계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3개월간 평균 3.1%가 감소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5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7.3%가 감소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8%,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3.5%를 기록하여 백화점 위주로 판매액지수가 하락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4년 8월 9.8%로 계절적 영향 등에 의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이후 백화점 판매의 부진으로 최근 3개월간 평균 3.1% 감소
- 2014년 이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서울 시민의 위축된 소비 심리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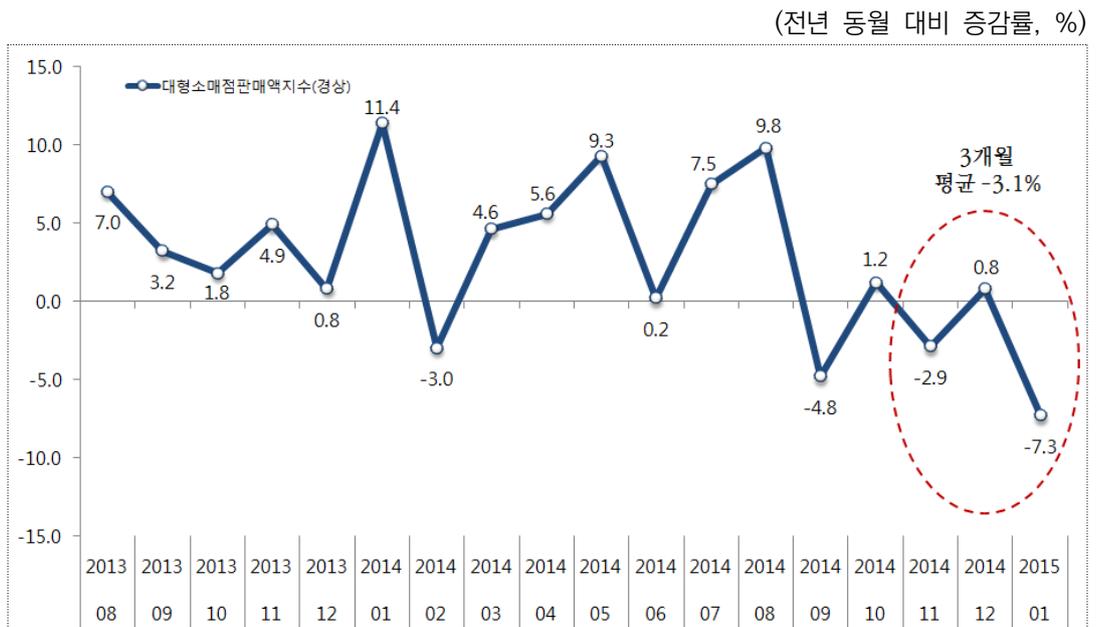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자료 : 통계청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보합

- 2015년 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가 증가한 5,118명
 -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2014년 11월 하반기 공채의 영향으로 0.8%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여 0%대 초반을 유지
- 2015년 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882명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공채의 계절적 영향으로 급증하여 2개월 연속 1.7%대의 성장을 보였으나, 1월 들어 성장세가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0%대의 성장률을 기록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2년 만에 1% 이상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나, 이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경기 회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여전히 부진

서울의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

- 2015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0.6으로 전(前) 분기보다 1.9p 감소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3년 4/4분기(102.0)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90대 초반까지 하락
- 유가 급락에 따른 물가 상승률 둔화와 고용 증가세 등 경기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부진
 - 최근 3개월 물가 상승률이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고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고용지표 또한 상승하는 등 소비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백화점과 마트 판매액 증감률은 여전히 감소세
-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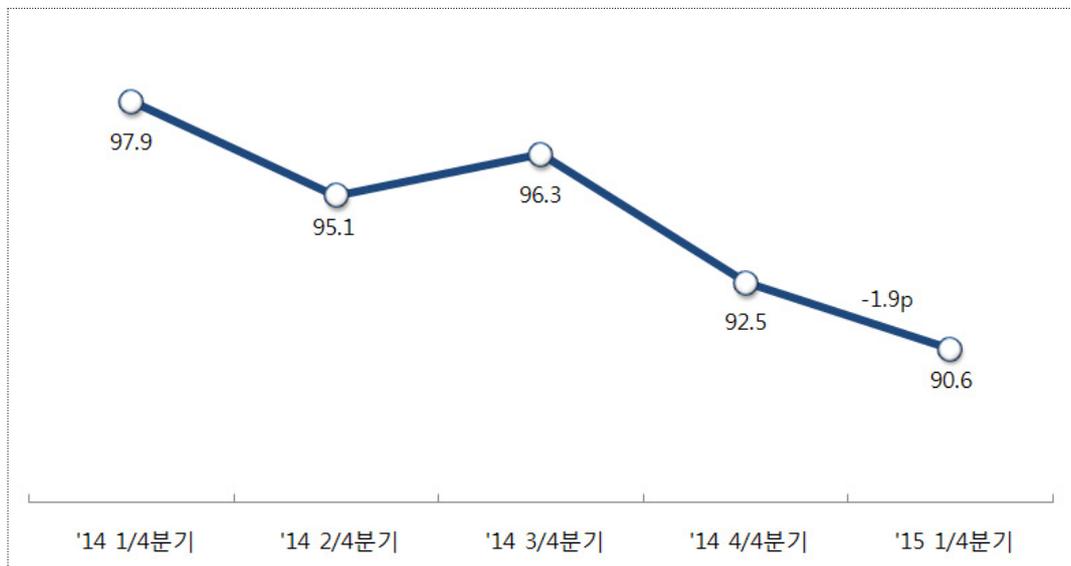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표준화지수임.

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

- 2015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상승한 81.0,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4.9로 전 분기 대비 3.0p 증가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만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수 값이 여전히 80대 초반으로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형편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년 연속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다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94.9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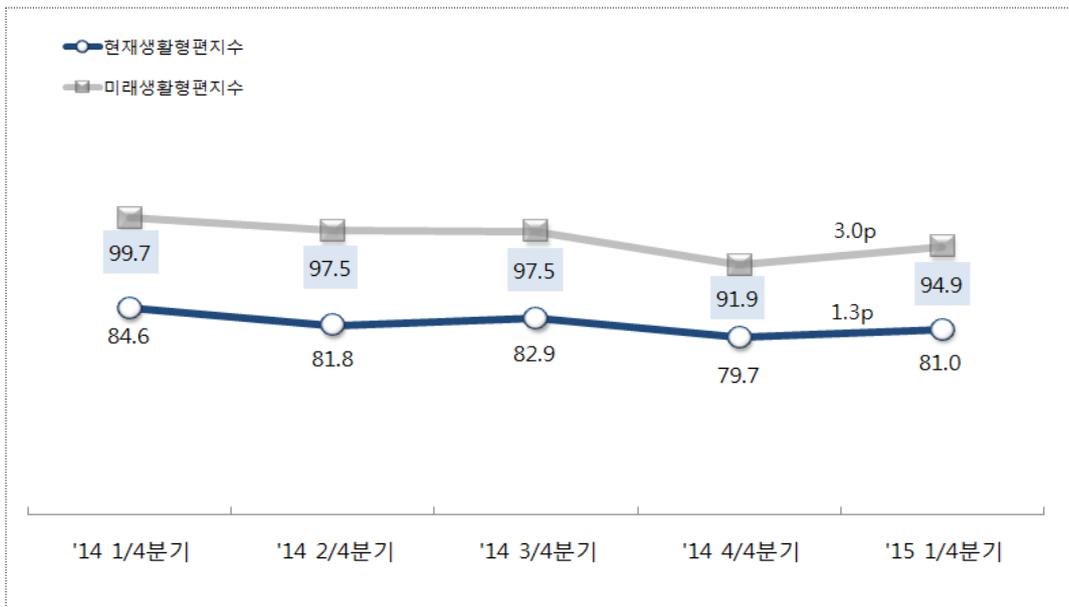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 생활형편을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이 가장 긍정적

-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인 81.0보다 높은 지역은 동남권(88.2), 서남권(82.1) 순
- 3개 권역의 지수 값은 80대에 머무르는 반면, 동북권과 도심권은 각각 76.3, 75.8로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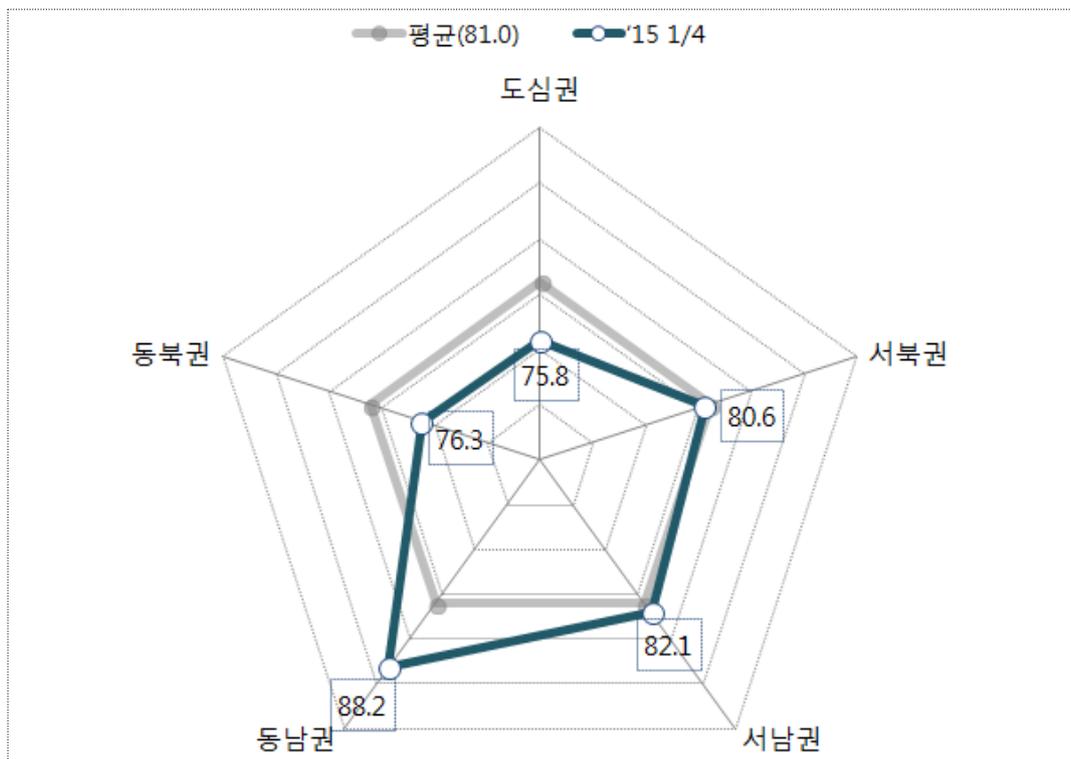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

서울의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2개월 연속 하락

- 2015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6p 하락한 55.6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3년 1/4분기 53.4 이래로 2년 만에 50대 중반의 수치로 하락하여 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증가
- 2015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0.0으로 전 분기 대비 1.7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 또한 최근 5년 중 최저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개선이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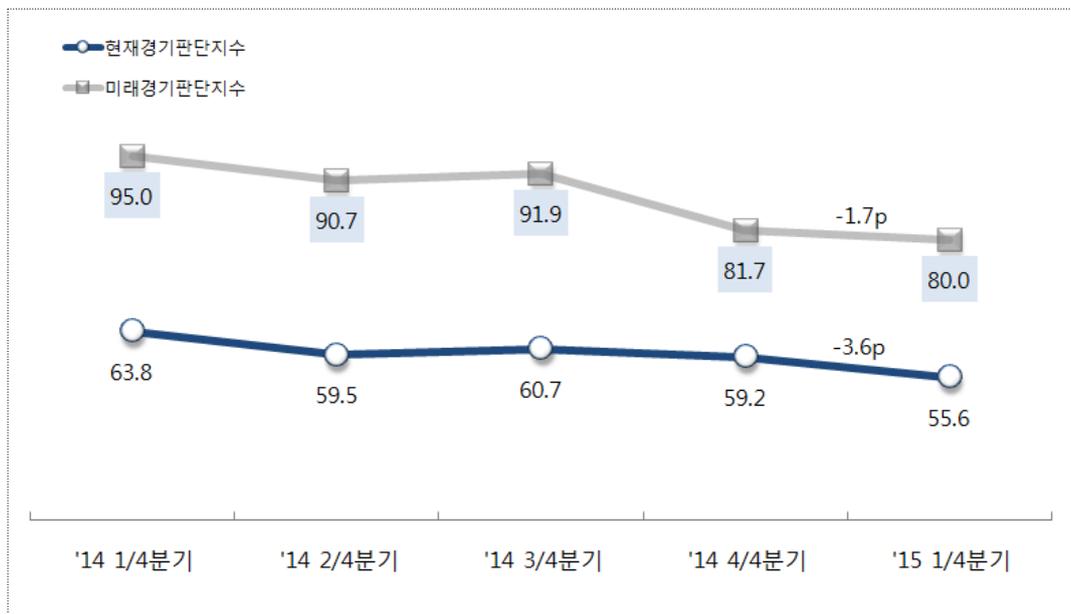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에서 현재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5개 권역 중 동남권(60.2)과 서남권(56.0)만이 전체 「현재경기판단지수」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며 1년 전 대비 현재 경기를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서북권(50.9)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많은 사람이 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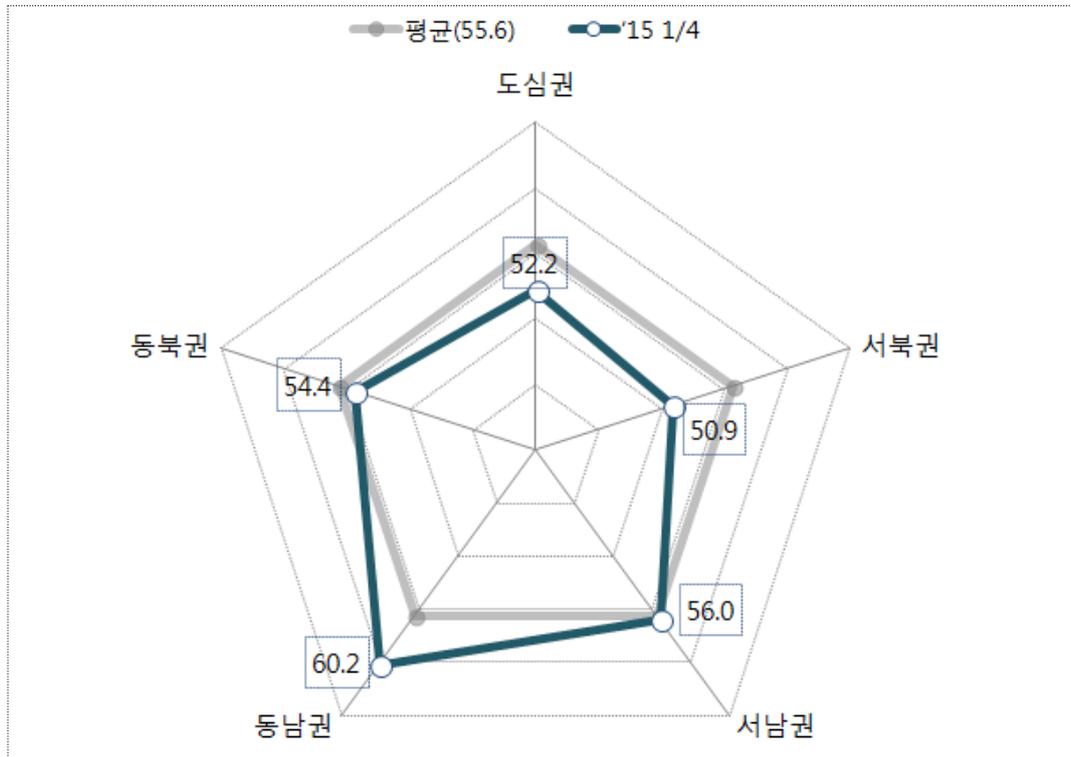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권역별 경기판단지수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은 증가, 향후 소비는 줄일 예정

- 2015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5로 기준치(100)를 상회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년 전에 비해 현재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 분기 대비 4.9p 증가하여 지난해 3/4분기 수준으로 상승
- 2015년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6.7로 꾸준한 하락세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14년 1/4분기에 104.2를 기록한 이후로 연속 하락하여 전 분기 대비 1.7p 감소한 96.7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소비에 대한 계획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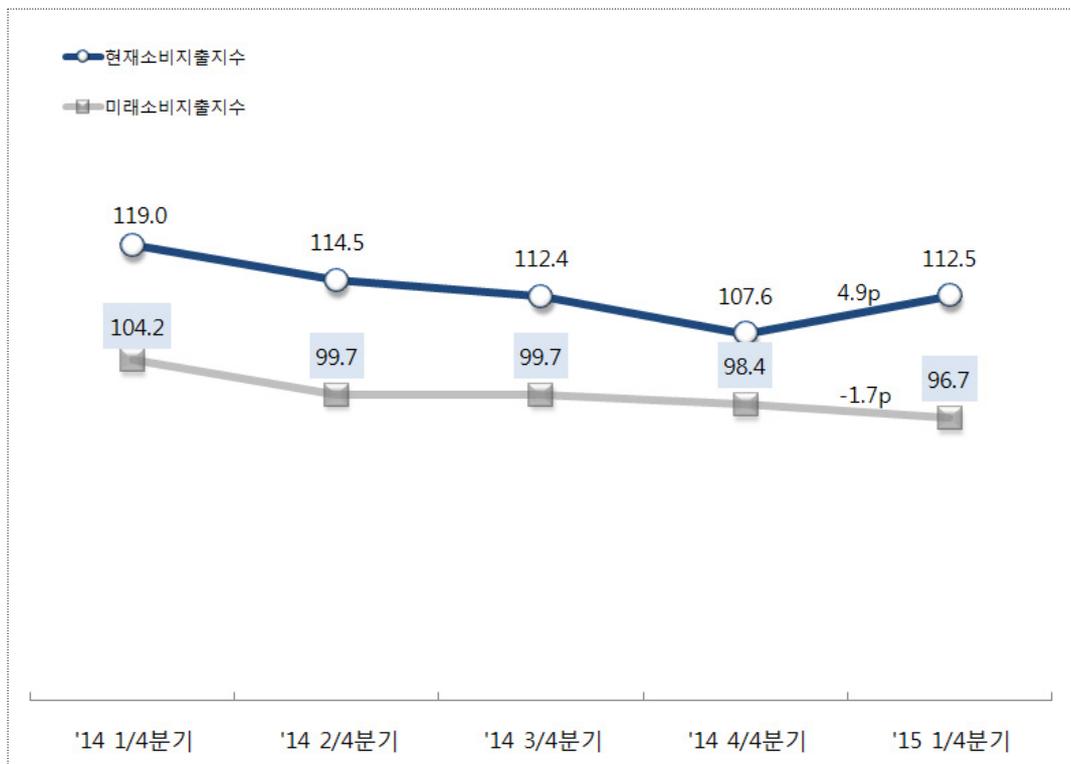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품목별로 보면, 교육·주거·통신비에서 지출이 증가할 전망

- 전 분기에 비해 ‘교육비’는 5.2p 증가한 122.1, ‘주거비’는 2.6p 상승한 102.4, ‘교통/통신비’는 1.7p 하락한 100.2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교육비’는 지난 분기에 감소하였으나 다시 상승하여 2014년 1/4분기 수준으로 복귀하였는데, 이는 새 학기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주거비’ 또한 지난 분기 감소세에서 다시 기준치(100)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교통/통신비’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지출 계획은 여전히 증가할 전망
- ‘의류비’는 전 분기 대비 6.8p 하락한 78.7, ‘문화오락비’는 전 분기 대비 4.4p 감소한 85.8, ‘식료품비’는 1.3p 하락한 94.4를 기록
- 지난 분기 ‘주거비’의 하락폭(-3.2p)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반면, 2015년 1/4분기에는 ‘의류비’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류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문화오락비’와 ‘식료품비’ 또한 감소세로 문화생활뿐 아니라 실생활비 지출까지도 줄일 계획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내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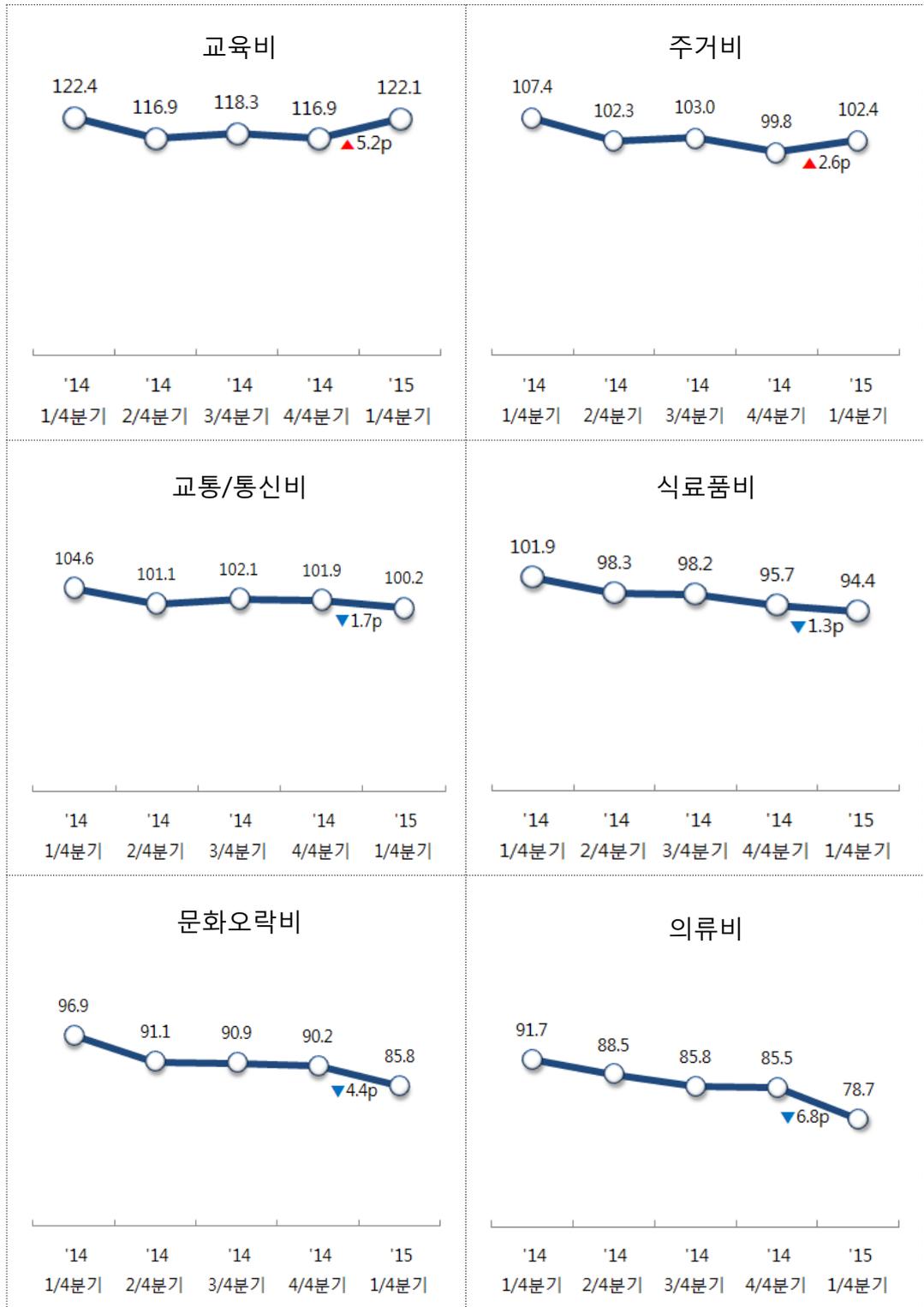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 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는 부진

- 2015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6.9p 하락한 88.0을 기록
 - 2014년 1/4분기(95.7) 이후 90대 중반의 값에서 횡보하던 그래프는 2015년 1/4분기 들어 80대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내구재에 대한 소비심리는 부정적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8.2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2.1p 상승
 - 2014년 2/4분기(99.6)에 기준치(100)를 하회한 이래 4/4분기 96.1로 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로 주택구입에 대한 기대심리는 미미한 개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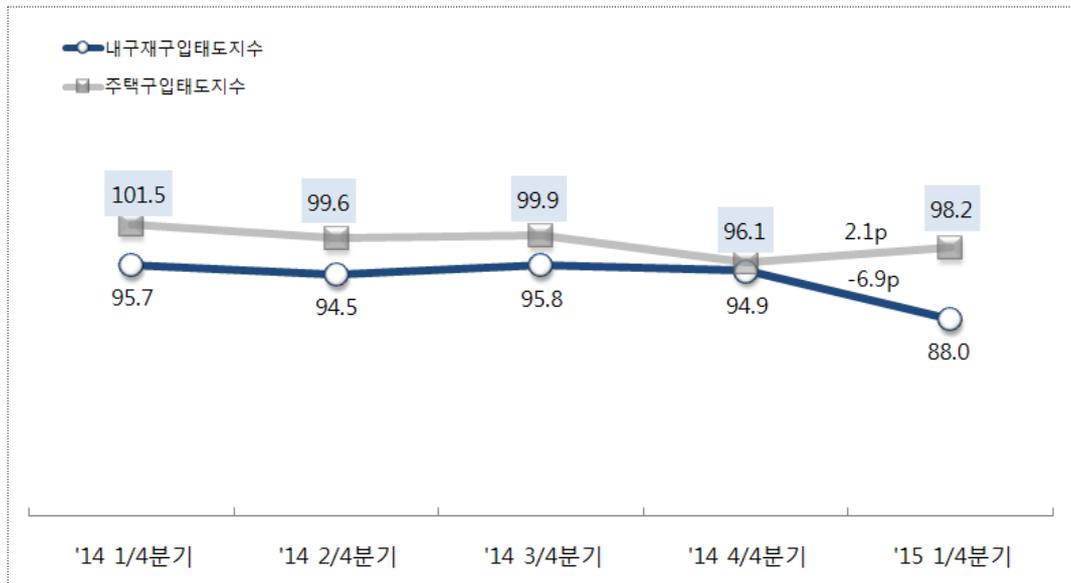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

- 서남권(92.3)과 서북권(88.5)의 내구재구입태도는 전체 지수 88.0보다 상회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해 현재가 내구재구입시기로 적절한 것으로 인식
- 반면 동북권(84.9)에서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치는 전체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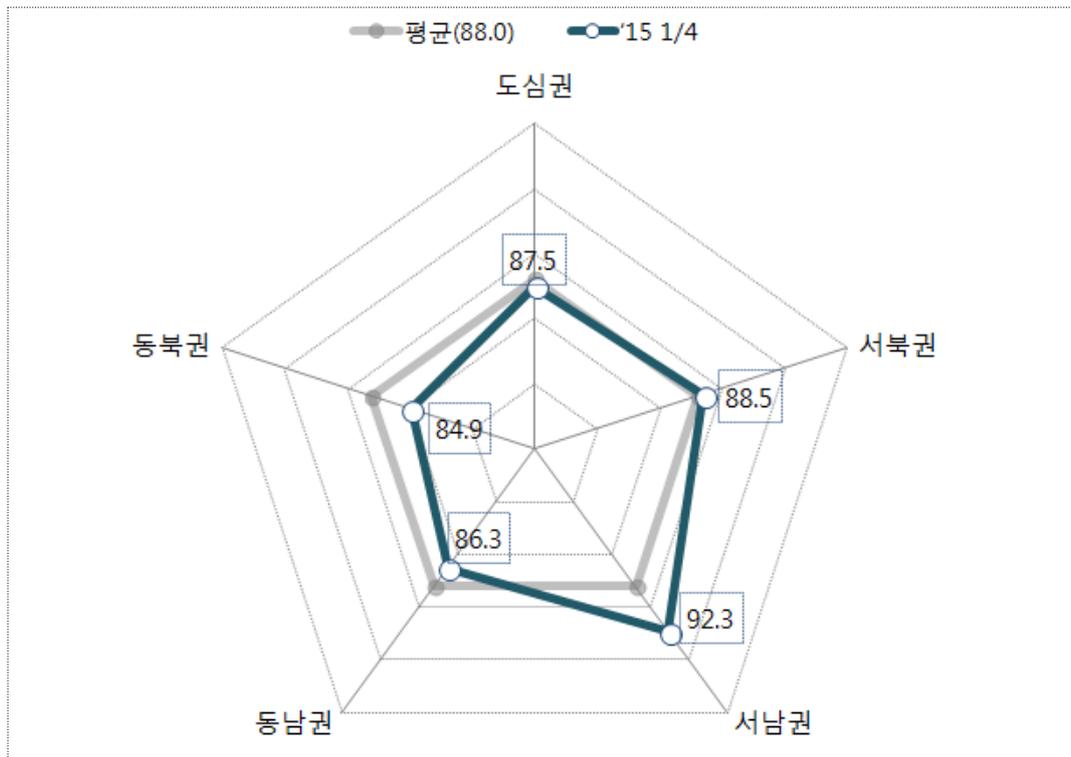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서남권에서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

- 서남권과 도심권에서 「주택구입태도지수」가 각각 101.0과 100.1을 기록하며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주택구입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동남권은 93.2로 많은 사람이 주택구입시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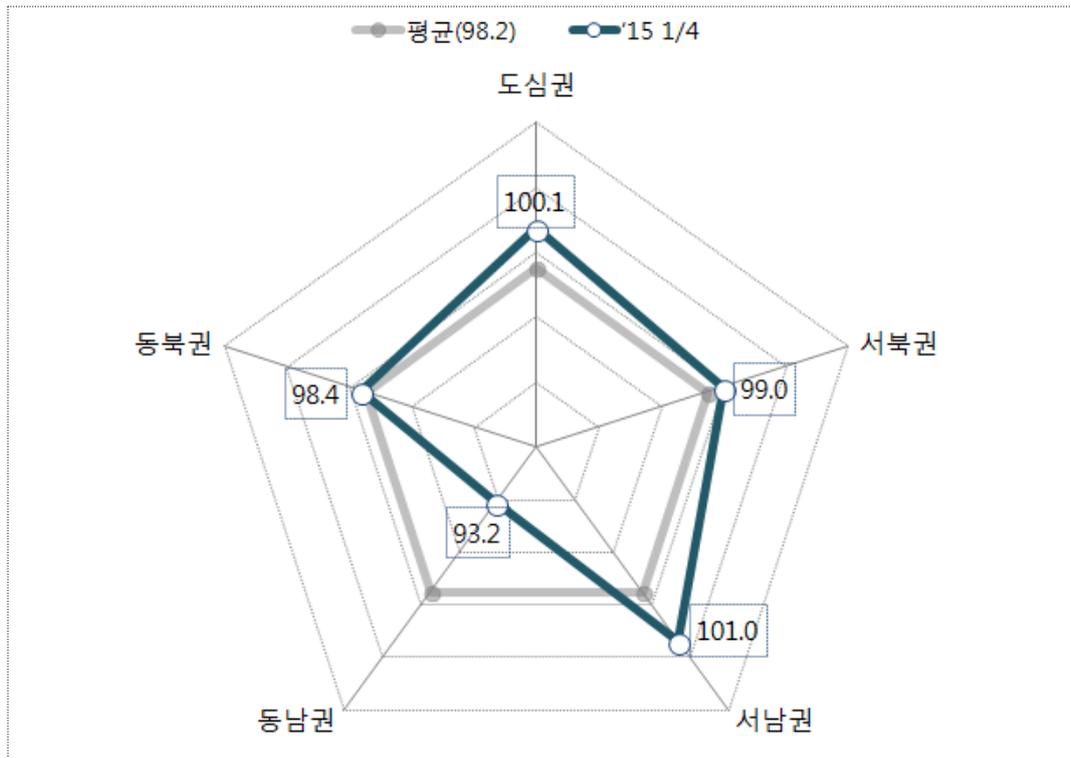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권역별 주택구입태도지수

고용상황을 제외한 체감물가와 순자산은 소폭 상승세

- 2015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소폭 상승한 94.2를 기록
- 2015년 1/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2.9p 상승한 130.9로 향후 체감물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5년 2월 들어 국제 유가의 소폭 상향에 따라 상승 전망
- 2015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3.1로 전 분기 대비 2.2p 하락
- 최근 5년 이내 최저점을 기록하며 연속 하락하고 있어 2014년 말 취업자 수의 플러스 증감률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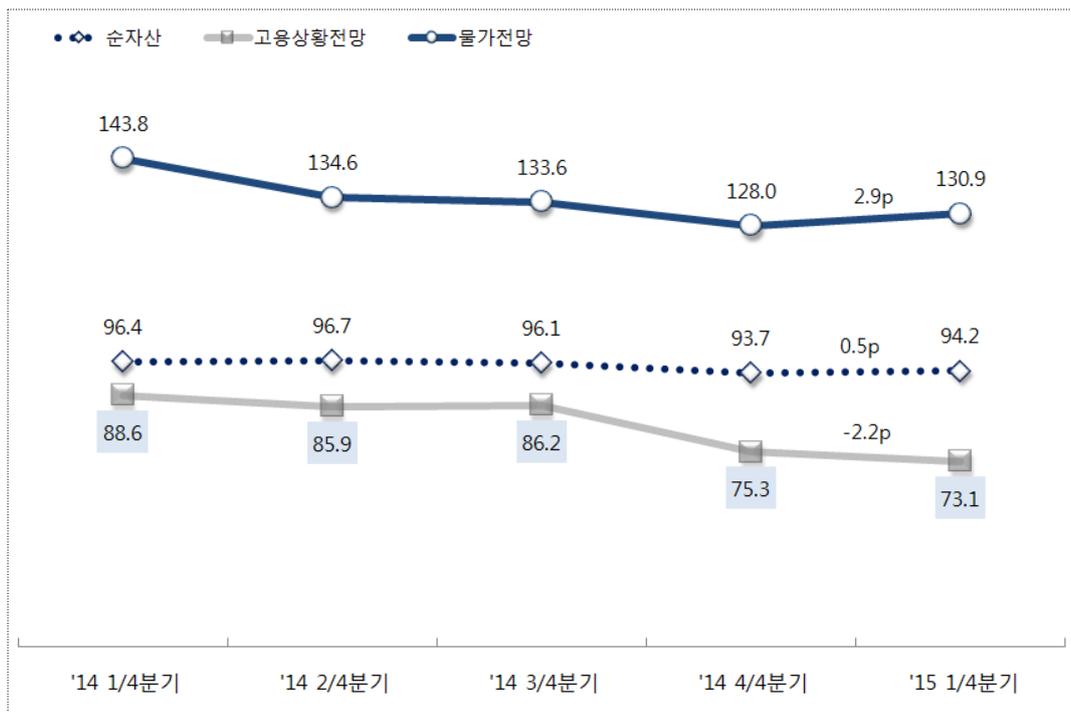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전망지수

Ⅲ. 2015년 1/4분기 부가 조사 : 청년 실업에 대한 인식

향후 1년간 청년 실업에 대해 서울 시민의 52.7%가 악화 전망

청년 실업 악화 전망 이유는 경기 침체, 기업 채용 축소 등

- 향후 1년 동안의 청년 실업 전망에 대해 의견을 묻는 부가 조사에서 52.7%에 달하는 539명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
-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34.8%가 답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9.3%인 95명만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
- 악화 전망 이유로는 ‘경기 침체(29.3%)’, ‘기업 신규 채용 축소(20.5%)’, ‘일자리 감소(19.1%)’ 등의 순으로 응답(응답자 539명)
- 개선 전망 이유로는 ‘경제 회복(23.8%)’, ‘새로운 일자리 증가(22.6%)’, ‘정부의 대책 마련(21.1%)’ 등의 순으로 응답(응답자 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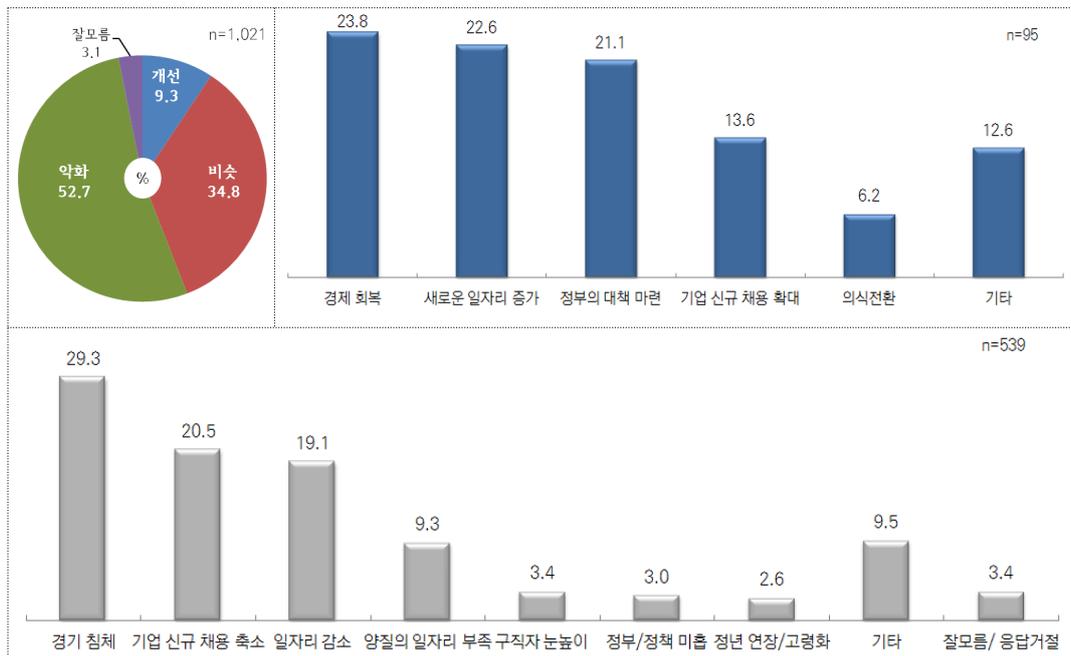


그림 15. 향후 1년간 청년 실업 개선 및 악화 전망 이유

일자리 창출 외 대책 방안은 처우 개선을 통한 취업 확대

-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51.5%에 달하는 526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청년 실업 해결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취업 확대’가 26.1%로 가장 큰 비율로 조사
- 그다음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15.0%, ‘대학의 직업 교육 강화’가 14.4%, ‘임금 구조 개혁’이 13.1%, ‘청년 창업활동 지원’이 10.1% 순
- 현재 노동정책에 대하여 서울 시민 다수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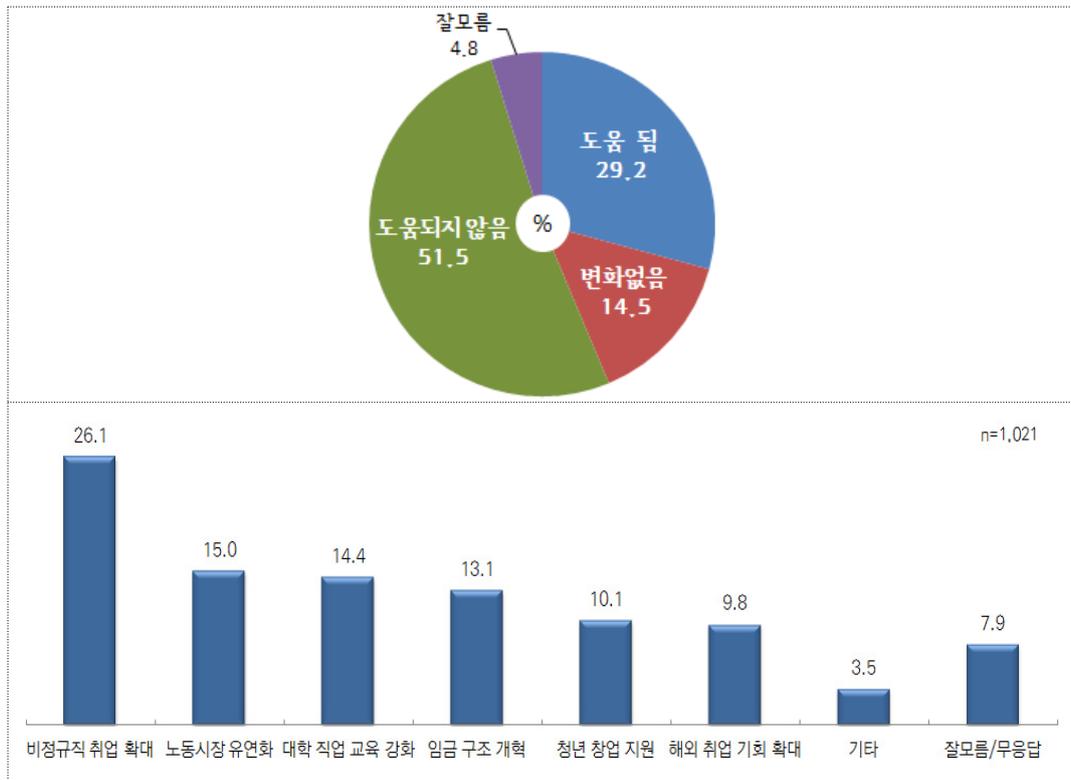


그림 16. '정부 대책에 대한 도움 여부'와 '일자리 창출 외 청년 실업 해결 방안'

IV. 요약 및 시사점

2015년 1/4분기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하락세

- 산업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하락한 반면 전체 취업자는 소폭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5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감률을 기록하며 최근 3개월간 평균 1.8%를 유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5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는 -3.5%, 백화점은 -10.8% 감소를 보여 최근 3개월간 평균 -3.1%를 기록
-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세로 2015년 1월 0.2% 증가한 5,118명이 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월 들어 0%대로 성장세가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882명

시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2개월 연속 하락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5년 1/4분기에 90.6으로 전 분기 대비 1.9p가 감소
- 2015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상승한 81.0,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6p 하락한 55.6으로 현재의 생활형편 및 경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지난해 3분기 수준인 112.5를 기록하였고,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에서는 ‘교육비’와 ‘주거비’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하여 각각 122.1, 102.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6.9p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8.2로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작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 가능성이 존재

내수 회복과 미래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 성장력 강화

영세가구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으로 민생 안정에 기여

- 서울의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서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nd 정책 지원이 필요
 - 저소득, 고령,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and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자리 마련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장려
 - 정부의 저금리 정책 등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므로, 가계소득 향상 and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해 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
 - 근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충분한 교육 and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
 - 영세 상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창조경제 핵심 산업의 활성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력을 향상

-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신생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특화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서울의 성장 기반을 강화
 -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성장하는 창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산업이 다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창조경제 클러스터 및 도심형 산업 등의 특화산업 지역 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서울의 잠재성장력을 공고화

부록 : 2015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4년 1/4분기	97.9	84.6	99.7	63.8	95.0	95.7	101.5
2014년 2/4분기	95.1	81.8	97.5	59.5	90.7	94.5	99.6
2014년 3/4분기	96.3	82.9	97.5	60.7	91.9	95.8	99.9
2014년 4/4분기	92.5	79.7	91.9	59.2	81.7	94.9	96.1
2015년 1/4분기	90.6	81.0	94.9	55.6	80.0	88.0	98.2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4년 1/4분기	119.0	104.2	96.4	88.6	143.8
2014년 2/4분기	114.5	99.7	96.7	85.9	134.6
2014년 3/4분기	112.4	99.7	96.1	86.2	133.6
2014년 4/4분기	107.6	98.4	93.7	75.3	128.0
2015년 1/4분기	112.5	96.7	94.2	73.1	130.9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2015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5년 3월 초중순).